

## 특별기고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  
kvma@kvma.or.kr



# 구제역! 다음 발생에 대비하자.

## 이번 구제역은 비싼 값을 치른 소중한 학습



지난 1월, 8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 포천과 연천에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우려한대로 4월에 강화에 이어 김포, 충주, 청양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지금까지 393농가에서 기르던 가축이 49,785마리가 땅에 묻혔다. 살처분 매몰에 참여한 사람이 연인원 77,629명에 이른다고 하니 통제초소나 상황실 근무자 그리고 예찰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쏟아 부은 예

산도 2,000여억 원에 달한다.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발생한 전염병이니 확산방지와 조기종식 그리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방역기간동안 간간히 뒷북대응이니 늦장대응이니 하는 말들이 흘러 나올 때면, 현장 방역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맥이 풀리는 듯 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전염병의 발생기전을 조금만 이해하고, “말 못하는 동물의 질병을 밝혀내는 일이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조금만 헤아려 준다면 이러한 말을 삼가 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의 경우 농림수산물부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였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그 뒤에는 수의과학검역원의 과학적이고 신속한 유전자 분석과 역학조사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이번 구제역은 축산관련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도 남겼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구제역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구제역 발생과 대응에서 얻은 교훈

일본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한국에만 발생하는가?

이 말은 방역당국에게 무능력을 질책하는 말로 들렸고, 그래서 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농담으로 원 발지가 중국이니 바이러스가 일본에 도착하려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구제역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의 국가가 대동소이하다.

이번 일본의 구제역 대처방법이 우리나라와 크게 달랐던 점은, 우리는 발생할 때마다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농장을 포함한 500m이내 또는 3km이내의 가축과 역학관련 농장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 매몰하였으나 일본은 초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만을 살처분 매몰하였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여 왔고, 축산농가의 방역의식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던 필자로서는 일본이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본 방역당국이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방법이 먹히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10km이내 가축에 대하여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확산을 감소시키면서 그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공하였더라면 우리가 시행한 정책보다 예산도 훨씬 덜 들었을 것이고 많은 가축을 땅에 묻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방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난다. 어쨌든 우리 방역당국의 이번 선택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 이번 일본의 구제역 발생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구제역은 방심하면 반드시 유입된다는 사실과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좀 더 강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

### 방역조직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

농림수산식품부는 벌써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 주길 기대한다.  
이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질병관리본부와 유사한  
가축질병관리본부 같은 확실한 조직의 탄생도  
기대해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지도 모  
른다.

그러나 매번 구제역이나 HPAI와 같은 악성가축  
전염병의 발생으로 입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

액과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더 이상 미룰 일만도 아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이들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기  
는 진급, 보직 그리고 급여에서 결정된다.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수의, 축산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  
당도 이번 기회에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가족들과 나들이 약속을 어긴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1년 내내 주말을 반납하고 주야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향상 및 수준 유지에 주력

가축전염병의 발생 여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에 달렸다.

그러므로 정부는 축산인들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축산농가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준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반복 교육도 필요하다. 방역교육은 지금처럼 지자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집체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농가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동물 수의사들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을 강도 높게 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진료를 다니면서 진료농가와 같은 축산 상에 있는 농가를 방문하도록 하여 농장관리자를 대상  
으로 일대일로 주기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역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  
여야 한다.

### 축산인의 방역의식

- ① 축사출입은 가족관리인만 해야 한다. 주인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다.
- ② 축사에 들어 갈 때는 모든 옷과 신발을 벗고 목욕을 한 후, 축사 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옷과 신발과 모자를 갈아입고 들어간다. 일을 보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의 역순으로 행한다. 만약 축사환경이 열악하여 목욕이 어렵다면 최소한 손을 씻고 신발을 갈아 신고 모자를 쓰도록 한다.”
- ③ 가축을 입식할 때는 반드시 일정기간 격리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기르고 있던 가축과 합사시키도록 한다.
- ④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을 할 경우에는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세차하거나 소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⑤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 및 약품 판매자는 위생복을 입고 들어오게 하거나 위 모든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⑥ 관리인을 고용할 때나 해외여행 또는 다른 농장을 방문한 관리인은 목욕 등 개인정비를 스스로하고 5일 이상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축사입구에는 발판소독조나 소독약을 비치해 두고 축사내에서 신는 신발이나 장화를 소독액에 담그도록 한다.
- ⑧ 축사 앞 또는 주변에 대한 소독은 최소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 ⑨ 쥐나 곤충을 주기적으로 잡고, 야생동물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전파요인들에 대한 DB구축과 관리에 집중

오늘날 세계가 개방되고,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전염병을 완전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축산농가와 그 농가의 사육규모 그리고 가축이동 상황에 대한 기초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구제역 역학조사에서 주요 전파요인이 축사를 드나드는 축주나 외국인을 포함한 관리인, 축산관련 일을 하면서 농가를 방문하는 사람들 즉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거자 등과 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DB도 평상시에 구축해 두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가축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의사의 경우도 면허자의 30% 정도만 수의사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의사나 약사들과 같이 제대로 관리되게 하여 국가 재난 시 바로 동원될 수 있도록

록 하여야 한다. 전산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수의과학검역원이 관리책임기관이 되고, 데이터는 농장을 방문하는 수의사, 방역사, 사료회사나 약품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책임과 보안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에게만 이 일을 시키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 제한된 공무원만으로 자료를 갱신하다 보면 자료 갱신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 떨어짐에 따라 쓸모없는 낡은 데이터만 쌓이게 될 것이다. 이 DB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제대로 갱신만 된다면, 구제역 발생시에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차단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살처분 보상률과 매몰지는 사전에 선정

방역 지역 내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하는 목적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감염된 가축을 신속하게 없애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농가가 보상과 매몰지에 대한 협상에 동의하지 않아 살처분 작업이 늦어졌다. 살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그 만큼 확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축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매몰지를 예비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상률과 보상범위도 미리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정하여 놓았다가 구제역이 발생되면 살처분 통보와 동시에 별도의 협상 없이 살처분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살처분 정책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 현장 개업 수의사와 국방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가장 어려운 일이 안락사와 매몰이다. 안락사는 싫더라도 수의사가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수의직 공무원들이 투입된다.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방역관 본연의 임무인 관리감독업무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밤새워 안락사 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낮에 또 다른 일을 본다는 것은 무리다. 대안으로 현장 수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살처분이 시작되면 어차피 이들도 그 지역에서 진료행위가 중단된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축주들과 교감이 있는 산업동물수의사들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용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경비가 더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매몰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한 번 투입된 인력은 14일간 다른 농장 방문을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초 3일 동안은 그 지역 내에 격리되어 개인위생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추가경비 발생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

## 특별기고

지면 매물 작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게 되어 결국 살처분 매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격리할 필요도 없다.

투입된 후, 바로 병영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전파위험이 전혀 없다. 국방부도 어려움은 있다. 요즘 같은 저 출산 시대에 군에 간 귀한 자식이 가축매물을 하는 것을 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라도 군인이 나서줘야 한다.

대민지원은 요청을 받은 현지 지휘관이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능력이 제한될 경우 상급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흔쾌히 받아 들여야 한다.

나도 한 자식의 아버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사람이다. 국가 재난에 내 자식이 앞장서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제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었다. 식품안전과 직결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